

이 글은 비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참고만 바랍니다.

본 매체에 게재되는 모든 자료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글쓰이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과거의 데이터를 기초로 한 투자 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투자자분들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매체에 게시되는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독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심심한 Insight: 스마트팜(성장)+알미늄압출업(원자재연동)+스마트장어양식(리오프닝) - 개별종목 3탄 그린플러스(186230)

그린플러스는 꿈을 먹고 크는 성장주입니다.

그린플러스는 스마트팜 시공을 주력 매출로 삼고 있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팜 상장사입니다. 설립일은 '97. 10. 21. 상장일은 '19. 8. 7.로 업력도 짧지 않은 기업입니다. 세제혜택과 차입금 확보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려면 벤처기업 지정 여부를 살펴 봐야 합니다. 벤처기업지정일은 '21. 4. 21.이고 벤처기업해제(예정)일은 '24. 4. 20.입니다. 해당 기업의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어떤지 보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주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스마트팜 육성 정책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주가가 반응한 시점은 늦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이 안 좋았던 걸까요. 다음 페이지에 요약재무제표를 첨부해 놓았는데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팜 산업의 성장성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측 그래프를 보면 스마트팜 산업의 성장세는 견조해 보입니다. 시가총액 1,639억원, 전년도연 매출/영업이익/영업이익률은 각각 627억원/59억/9.47%입니다. 시설투자금과 공사 진행 지연에 따른 매출 채권 회수 지연에 의해 당기순이익이 적자라 PER계산이 어렵지만 영업이익만 가지고 보면 대략 멀티플을 18~22배로 받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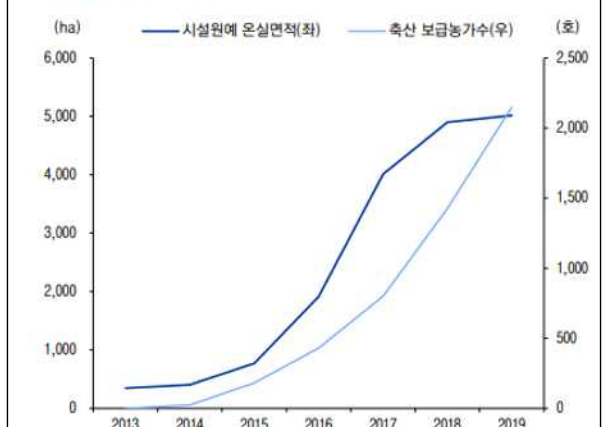
### • 농업 거시지표('19년)

구 분		Global	미국	네덜란드	한국
총 GDP	비중	100%	24.4%(세계 1위)	1.0%(세계 17위)	1.8%(세계 10위)
	\$	87조 7,345억	21조 4,332억	9,122억	1조 6,467억
	₩	10경 2,649조	2경 5,076조	1,067조	1,926조
농업 GDP	비중	100%	5.1%(세계 3위)	4.6%(순위 밖)	7.6%(순위 밖)
	\$	3조 4,922억	1,789억	164억	267억
	₩	4,000조	209조	18조	32조
농축 수산물 수출액	비중	100%	9.7%(세계 1위)	7.0%(세계 2위)	0.4%(순위 밖)
	\$	1조 4,108억	1,368억	987억	69억
	₩	1,650조 6,360억	160조 560억	115조 4,790억	8조 730억
경지면적(천 ha)		1,564,922	160,437	5,410	1,596

용어	정의(출처)
정밀농업 (Precision Agriculture)	가장 오래된 개념으로 농경지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적재적소에 물과 양분을 투입하는 농업이며, 최근 위성·항공영상, 센서 등이 상용화되며 현실화되고 있음 (농식품부, 2019)
스마트팜 (Smart Farm)	실내 시설농장(온실, 축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생육환경이 모니터링 되고 적기에 최적의 영농의사결정이 수행되는 농장을 의미함 (관계부처 합동, 2018)
디지털농업 (Digital Agriculture)	농업 관련 전반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수집·분석하고 공유하는 기술을 의미함 (Wikipedia, 2021)
스마트파밍 (Smart Farming)	스마트팜이 노지로 확장되는 개념으로 시설농업과 노지농업을 포괄함(농식품부·농진청·과기정통부, 2019)



### 국내 스마트팜 보급 현황



IFRS(연결)	Annual				Net Quarter			
	2018/12	2019/12	2020/12	2021/12(E) ㉠	2020/12	2021/03	2021/06	2021/09(E) ㉡
매출액	464	488	627		185	188	240	
영업이익	51	51	59		16	18	12	
영업이익(발표기준)	51	51	59		16	18	12	
당기순이익	23	25	-21		-38	17	-58	
지배주주순이익	22	25	-19		-37	17	-55	
비지배주주순이익	1	0	-2		-1	-0	-4	
자산총계	637	723	891		891	909	900	
부채총계	397	349	551		551	551	420	
자본총계	240	374	340		340	358	479	
지배주주지분	231	365	333		333	350	475	
비지배주주지분	9	9	7		7	7	5	
자본금	17	24	48		48	48	54	
부채비율 ㉢	165.54	93.42	161.83		161.83	154.09	87.68	
유보율 ㉣	1,229.56	1,413.21	620.98		620.98	657.10	802.21	
영업이익률 ㉤	11.02	10.40	9.47		8.67	9.82	4.81	
지배주주순이익률 ㉥	4.74	5.11	-3.08		-20.00	9.22	-22.85	
ROA ㉦	3.83	3.72	-2.65		-17.48	7.69	-25.80	
ROE ㉧	12.07	8.37	-5.53		-41.77	20.32	-53.15	
EPS ㉨ (원)	340	315	-201		-385	181	-506	
BPS ㉩ (원)	3,532	3,815	3,605		3,605	3,786	4,511	
DPS ㉪ (원)								
PER ㉫	10.77	18.00	N/A					

스마트팜 온실사업과 알미늄 사업은 모두 외형 성장증이지만 온실사업은 견조하고 알미늄 압출은 원자재 값에 커플링됩니다.

하단 표를 보면 스마트팜 자재 사업과 시공 사업 모두 YOY로 견실하게 성장중입니다. 자재 판매는 20년간 거래해온 일본과 지속적으로 거래중이고 최근부터 호주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스토리를 더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양쪽 다 우호적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수주산업의 특성상 재무제표 해석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선형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

매출유형	종 목		2018연도 (제22기)		2019연도 (제23기)		2020연도 (제24기)		2021년 (제25기 3분기 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제품	압출	내수	4,359	20,934	4,711	21,893	5,191	22,273	4,585	21,591
제품	가공	내 수	-	4,538	-	3,370	-	3,465	-	2,987
제품	스마트팜자재	내수	-	1,338	-	3,490	-	5,147	-	1,521
		수출	-	8,028	-	4,283	-	5,884	-	5,239
시공	스마트팜시공	내수	-	4,395	-	8,821	-	18,778	-	24,524
제품	장어	내수	-	8,411	-	8,714	-	8,351	-	3,702
제품	탈기	내 수	-	717	-	860	-	780	-	547
합 계		수 출	-	8,028	-	4,228	-	5,884	-	5,239
		내수	4,359	38,329	4,711	44,548	5,191	58,792	3,185	54,871
		합 계	4,359	48,357	4,711	48,831	5,191	62,878	3,185	60,110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종목	생산(판매)개시일	주요상표	매출액(비율)		제 품 설 명
				제25기 3분기	제24기 3분기	
알루미늄사업	압출	1997.10	그린플러스	21,590(35.92%)	18,735(37.89%)	주)
	가공	1997.10	그린플러스	2,987(4.97%)	2,428(5.50%)	
온실사업	온실자재	1997.10	그린플러스	6,421(10.68%)	5,716(12.94%)	
	온실시공	1997.10	그린플러스	24,863(41.38%)	12,351(27.97%)	
양식사업	장어	2016.02	그린피시팜	3,702(6.18%)	6,739(14.58%)	
작물재배사업	탈기	2016.05	그린케이팜	547(0.91%)	493(1.12%)	

다만 알미늄 압출업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이며 올해 알미늄 원자재 값의 급격한 상승이 매출원가 상승 압박으로 작용했

다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동사의 알미늄 사업 외형 성장 폭만큼 OP마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단점이 미래의 수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모니터링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장어양식은 리오프닝 수혜산업입니다.

앞서 제시한 분기보고서의 장어 매출액을 보면 YOY로 40%씩 성장하던 효자 사업부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양식 장어 출하량이 급락하면서 현재 매출액 비중이 많이 축소되었지만 2019년 수준으로 장어 출하량이 회복된다면 외적 성장한 스마트팜 사업과 알미늄 사업 이상으로 실적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사회적 거리단계가 내려간 현시점에서 외식산업을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 산업에 주목할 때 동사도 함께 관심종목에 담아두었다가 스마트팜 수주 공시, 알미늄을 비롯한 원자재 값 하락의 정보를 확인할 때마다 비중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설문조사★

여러분의 그린플러스 6개월 뒤 주가를 ↑ 또는 ↓로 채팅방에 투표해주세요. 앞으로는 피드백 주신 분만 개별적으로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